

# 외국인 계절 근로자 효과 '적중'

### 순창군, 지역 농가 큰 호응... 근로자 이탈방지 사전적 장치 마련 등 국제 노동기준 준수

순창군이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사업'이 농민계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월 18일 라오스 여성 30여명이 순창군에 입국해 현재까지 70여 농가에 투입되어 인력난 해소에 허덕이고 있는 농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운영되는 '계절근로자 운영 사업'은 순창군조합공공사업법인에 주관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두

를 선별, 고추 정식, 배 적과, 육묘작업 등 다양한 농작업에 투입되어 지역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 군수는 취임 후 2년간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실제로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3개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근로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 초청 등을 통해 순창형 농업 분야 인력 수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또한, 군은 대면·전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근로자와 농가 간의 의사소통을 돕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근로자 이탈방지를 위한 사전적 장치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군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환경과 공정한 대우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인 노동 기준을 준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근로 중 발생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인력지원을 받은 농가는 "이전에는 일손 부족으로 제때 작업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계절근로자들 덕분에 수확 시기를 정확히 맞출 수 있어 수익성이 좋아졌다"고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이 순창군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우리 지역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 증진을 도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난 4월 18일 라오스 여성 30여명이 순창군에 입국해 현재까지 70여 농가에 투입되어 인력난 해소에 허덕이고 있는 농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 남원 농특산물 축제 개최

### 10일부터 16일까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10일부터 16일까지 94회 춘향제와 함께 지역 농업인과 소상공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하투원 앞 승월교 아래 요천둔치(월궁광장) 일원에서 2024 남원 농특산물 축제를 개최한다.

남원시는 공고를 통해 지역 농업인(단체, 법인)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

로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자를 모집했으며, 50개 업체가 축첩, 남원조합공동법인 등과 체험 및 판매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바비큐, 막걸리, 부각 등 시식 행사를 통해 남원의 대표 음식을 시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무대 이벤트로 춘향 골든벨, 가위바위보 왕중왕, 깜짝 노래방, 즉석 행운권 추첨 등 시

민과 관광객이 함께 맛도 보고 참여할 수 있는 농특산물 축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첫날에는 전국 고교생 요리경연대회 본선이 제일고에서 진행되며, 이번 요리대회는 남원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9~26일 이메일을 통해 접수를 진행한 결과 25팀이 신청(조리단품 14팀, 디저트 11팀), 1차 서류 심사 결과 총 20팀이 선발되었다.

2차 본선에서는 총10팀이 선발되며, 각 상장과 상금(금상 15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을 수상하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준비 2차 컨설팅 실시

순창군은 오는 30일에 실시 예정인 2024년 재난 대비 안전한국훈련을 앞두고 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차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지진으로 인한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내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복구, 수습 활동을 위한

훈련으로, 11개 유관기관 40여 명이 참석해 재난상황에 따른 분야별 대응·복구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컨설팅 자문단인 우석대학교 김유성 교수와 보령시 안전총괄과 조성규 주무관이 17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훈련의 기획, 설계, 실시, 평

가 단계별 개선방안 지도 및 문제점에 대한 보완작업을 함께 공유했다.

아울러, 군은 이번 2차 컨설팅을 통해 접거한 내용들을 보완 및 개선하여 오는 30일 훈련을 완벽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4년 순창군 안전한국훈련은 11개 사회단체 3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에 심어진 작약꽃.

(사진=임실군청 제공)

## 옥정호 '환상의 작약꽃밭' 으로 초대

### 임실군, 붕어섬 생태공원·운종리 작약꽃밭 이달 중순 만개 예정

임실군 옥정호의 5월을 대표하는 작약꽃이 개화를 시작하면서 환상적인 작약꽃 경관을 선사한다.

군에 따르면 임실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과 운암면 운종리에 식재된 작약꽃이 5월에 접어들어 한두 송이씩 개화를 시작하면서 관광객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붕어섬 생태공원과 운암면 운종리에 조성된 작약밭의 작약들은 5월 중순에는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붕어섬 생태공원에는 2만4,000본의 작약이 1,800평에, 운암면 운종리에는 3만본의 작약이 2,150평에 심어져 있어 5월 개화기에는 작약꽃이 장관을 이룬다.

특히나 섬진강 다목적댐으로 형성된 인공호수인 옥정호를 배경으로 작약꽃을 감상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장소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군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방문객들의 발길이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작약밭 운영지 주변 환경 정비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운종리 작약밭 주변으로 안내 인일뿐 아니라 교통전문요원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앞선 4월에는 420m의 옥정호 출렁다리를 건너면 나오는 붕어섬 생태공원에 푸릇푸릇한 초록빛 사이로 분홍빛, 붉은빛 붓으로 터치해 놓은 듯 7만여 본의 꽃잔디와 철쭉들이 만개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실제 붓꽃과 철쭉, 수선화에 이어 꽃잔디와 철쭉의 진분홍이 장관을 이루면서 3월 정식 개장 이후 전국 각지에서 10만여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인산인해를 이뤘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9~11일 개최 드론박람회 참가

남원시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의 드론박람회에 참가해 드론 실증도시 '남원시 관'을 운영한다.

이 박람회는 '드론으로 실현하는 세상, Drones Come True!'라는 주제로 국가기관, 지자체, 드론기업 전시관이 조성되고, 이와 함께 글로벌 콘퍼런스와 비즈니스 캠퍼도 진행, 우리나라 드론 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인들과 함께 드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남원시 전시관에서는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국토교통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3개 드론전문업체(쥬아세파, 쥬인투스카이, 쥬시스테크)와 올해 추진 중인 드론 배송, 드론 레저, 공간정보 등 실증 사

업에 대해 소개하고 드론 기체, 영상 등도 관람객에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드론 레저스포츠 중심도시 남원시의 드론 레저스포츠 인프라 조성 사업, 2024 국제 드론제전 with 로봇 등 남원시의 드론산업 전반을 홍보한다.

남원시는 드론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는 다목적 실내 드론 레저스포츠 공간인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전시 체험, 드론·로봇대회, 부대행사 등 드론 레저스포츠로 피어날 남원을 위해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을 준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 '음식점 위생등급 특화 시범 구역' 선정

순창군은 발효테마파크 일대가 전북특별자치도 '음식점 위생등급 특화 시범 구역'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 특화 시범 구역'은 일정 지역 또는 거리 등을 선정하여 다수의 음식점이 위생 등급을 지정받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구역이다. 대상 구역인 발효테마파크 일대는 매년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모여드는 지역 명소로, 군은 이에 맞는 안전한 외식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효테마파크 일대를 위생등급 특화 구역으로 조성하여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군은, 발효테마파크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3개 분야 44개 항목으로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 좋음' 등 3개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2025년 주민참여 예산 제안사업 공모

남원시는 2025년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이달 9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2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남원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 대상 사업에는 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시민건강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정책사업 등이며,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이나 시청(2층 기획실)을 방문 접수 및 우편과 팩스 및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남원시는 올해 새롭게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중으로, 예산 전문 교육기관에서 오는 5월 28일까지 읍면동에 직접 찾아가 알기 쉽게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작성하고 발굴해 분야별 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야별 익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